

만남

05

2021

통권 567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말씀대로 365〉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하다

성경1독과 말씀 묵상을 목표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말씀대로 365〉가 4월 말 「열왕기하」를 끝으로 말씀통독 교재 제1권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제2권에 들어갔다. 8월 말까지 123일간 진행될 제2권에서는 역사서인 「역대상」을 시작으로 예언서인 「에스겔」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말씀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말씀대로 365〉 제2권은 지난 4월 18일부터 교회 내 설치된 부스를 통해 성도들에게 배포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성도들은 매일 제공되는 김운성 목사의 말씀 묵상 영상과 본 교회 교역자들의 본문 해설 영상을 SNS 등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영적 유대감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68면)

사진 원종석 기자

교회표어

눈을 들어 발을 보라
(요한복음 4:35)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홍 스위트 홍 김운성**

특집 04 **우리가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자 강승훈**
작은 천국, 가정 06 **어머니의 기도 덕분 김락훈**
 08 **내 어머니의 우선순위 윤연상**
 10 **한 세기를 살아내신 1921년생 나의 어머니 정병숙**
 11 **사모곡(思母曲) 김순자**
 12 **가족단톡방에서 매일 말씀 묵상으로 임유진**
 14 **가족의 울타리를 넓히는 행복한 선택 김경아**
 16 **가족탐구생활 : 가족사랑능력고사**

다음세대 20 **오감활용 신앙교육 홍지연**
 22 **교회학교에 교사가 필요하다 장계순**
 24 **새내기 벗님들을 움직이신 하나님 안태호**
 26 **2021 영락청년 선교비전 청년부**
 28 **우리의 일상을 확장하는 통로 강명구**
 30 **코로나19 시대 우리 아이 수학 실력 계영희**

땅끝까지 이르러 34 **외국인 선교, 교회 안에서도 이뤄집니다 정재훈**
 36 **사랑하는 분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전도부**

영락의 울타리 38 **앞에서 삶으로, 누림에서 나눔으로 사회봉사부**
 40 **우리는 가족이에요 박성울**
 42 **구역식구들이 사랑스러워요 김선애**
 44 **코로나 백신, 맞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박도준**

문화광장 48 **기쁨의 붓과 소망의 팔레트로 그려낸 그림 장덕진**
 50 **그리스도인을 넘어 '제자'로 김충섭**

교회소식 51 **부활주일 예배,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외**
 53 **5월 목회력**
 54 **편집장 레터**
 55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성서의 현장 56 **2021년 하늘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표지설명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편 127:3)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촬영 이상현 집사(2018년)

홈 스위트 홈

김 운 성 위임목사

2019년 촬영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20)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로 시작되는 노래를 아시지요? ‘Home Sweet Home’이라는 19세기 미국 가곡입니다. 본래 이 곡은 1823년 오페라 <클라리, 밀라노의 아가씨(Clari, Maid of Milan)>에 등장했는데, 남북전쟁 당시에 병사들이 집 생각에 많이 불러 유명해졌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은 김재인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붙인 제목입니다.

이 노래가 미국 노래라면, 우리나라에는 ‘고향의 봄’이란 국민 동요가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로 이어지는 이 노랫말을 지은 분은 이원수 선생

님입니다. 1911년에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이 선생님은 아기 때 창원으로 이사했는데, 너무 가난하여 서당에만 다니다가 1923년에서야 마산공립 보통학교 2학년에 편입했습니다. 당시 방정환 선생님께서 발행하던 잡지 『어린이』를 열심히 읽었는데, 그때 쓴 글이 1926년 『어린이』 4월호에 입선했고, 그 글이 ‘고향의 봄’입니다.

두 노래 모두 분주한 삶에 쫓기는 우리를 잠시 멈춰 서게 하고, 떠나온 곳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곳을 집이라 해도 좋고, 고향이라 해도 좋습니다. 떠나온 곳을 되돌아보노라면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지난 세월에 대한 그리움, 소중한 곳을

잇고 살아온 것에 대한 회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 혹은 머물 곳을 잃고 부평초처럼 떠도는 자기 처지에 대한 아픔의 눈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집과 고향은 무엇일까요? 단지 건물이나 특정 산천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일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첫울음을 운 이후로 우리는 가정에서 인생이란 길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정은 보금자리이며 사랑의 샘입니다. 나 이 들어 눈물지며 떠올리는 스위트 홈, 고향은 결국 가정입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프게도 홈 스위트 홈이란 아름다운 노래의 작사자인 하워드 페인 자신은 평생 한 번도 가정을 가지지 못한 채 방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을 핏박하는 것에 실망하여 미국을 떠났는데, 1842년에 튀니지 영사로 살다가 그곳에서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별세하기 일 년 전에 친구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으며 앞으로 맛보지 못하겠지.” 또 임종 당시에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게 돌아갈 가정은 없지만, 고향의 공동묘지에라도 묻어 주시오.” 그는 죽은 후 31년이 지난 1883년에 미국 워싱턴 세인트 조지 교회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집을 떠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가 떠난 것은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님을 떠났습니다. 가정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미리 받은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난 그는 결국 집 대신 짐승 우리, 가족 대신 돼지들과 함께해야 하는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때 그의 가슴에 제일 먼저 떠오른 곳은 아

버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은 그의 모습을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라고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가정을 잃은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이 떠났는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가정을 잃은 것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요즘의 어린이에게는 고향이 없다고 합니다. 고향의 봄이란 노래는 동요입니다만, 정작 애창자는 노인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고향은 “○○○아파트”라 하지 않을까요? 고향 이야기를 해 보라 하면 “100층짜리 빌딩이 있고요, 피자집이 새로 생겼는데, 엄청 맛있어요!”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만 있다면 거기가 고향입니다. 이원수 선생님은 고향을 ‘꽃 피는 산골’로 표현했는데, 꽃이 핀다고 삼천리가 전부 고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수 선생님께는 사랑하는 가족이 산천이고, 가족의 미소가 꽃이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있기에 꽃도 아름답게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꽃은 오히려 슬퍼 보일 것입니다.

집을 떠났던 아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아버지 사랑이요, 가정의 사랑입니다.

가정을 더 소중히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가정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돌아갑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품은 원초적 가정이라 하겠습니다. 가정을 통해 주시는 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만남**

우리가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자

다시 5월입니다. 또 봄과 함께 가정의 달이 찾아 왔습니다. 봄은 왔지만 코로나는 여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위기로, 다른 이들에게는 기회로 이 시간이 받아 들여집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께는 이 시간이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저는 우리에게 찾아온 특별한 시간에 대한 위기와 기회에 관한 진실은 가정이라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에게 소홀함이 양해가 되었던 예전과 달리 이제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을 밀착된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해야 합니다. 피해갈 수도 있는 일과 부딪치지 않아도 될 상황들을 자꾸 맞닥뜨려야 합니다. 당연히 가족 관계의 성격과 내용에 변동이 생기고 그 변화에서 가정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롭게 담겨집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적잖은 분들이 이러한 가정 변화의 상황 속에서 갈등과 위기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자녀와의 관계단절, 배우자와의 이혼과 같은 파국도 경험합니다. 아니, 이미 견잡을 수 없는 심각한 가정 문제를 이제 비로소 직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권속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대처하며 뛰어 넘고 계십니까?

TV를 보거나 인터넷 서점에서 가정에 대한 검

색을 하면 자녀양육과 부부관계, 가정문제에 관련한 프로그램과 도서, 자료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정의 위기는 보편적인 사회문제이며 대부분의 개인이 벌써 경험했거나 앞으로 마주하게 될 두려움입니다. 여기에 관해 저마다 인문·고전과 전통·문화, 철학·심리학 이론 등을 근거로 한 해결책과 기술적 사례를 가지고 우리에게 직면한 가정문제 해결과 모두가 꿈꾸는 가정의 행복을 선물로 줄 수 있을 것 같이 말합니다.

부분적이지만 일단은 그러한 제언들이 도움이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무엇보다 사람들이 엮여지는 관계에 관련한 고민과 연구는 실질적인 도구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은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사람이 손을 뻗어 해결책이 되는 방법이라는 도구를 잡고 사용해야 효과가 납니다. 즉,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힘은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기술적이거나 도구적인 무엇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찾고 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사역(Kardo International Ministries)을 통해 세계적으로 가정의 치유와 회복에 영향을 주고 있는 드니스 글렌(Denise Glenn)은 그의 책 『마더와이즈 : 지혜(디모데 퍼냄·원제 Wisdom for Mother)』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었을 때, 나는 집 근처 도서관에 가서 자녀 양육에 관한 책들을 부지런히 찾아 읽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집 책꽂이에 꽂아둔 성경책들에는 먼지가 수북했다. 그보다는 최신 육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싶었다. 공책에 열심히 메모하며 모든 양육 방법을 다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런 공부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 조언들을 따라 2~3년 동안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애쓸수록 좌절감만 더 커질 뿐이었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내 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나는 변함없는 진리, 믿고 의지할 힘이 되는 원천이 필요했다.’

- 마더와이즈 : 지혜, 29쪽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모든 삶의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그 시작과 끝이 가정 사역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도 과장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서가 불안정한 자녀, 비겁한 형제, 이기적인 남편, 무책임한 부모, 고집스러운 노인으로 평생을 어리석게 살았던 야곱의 곁에는 베엘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늘 계셨습니다.

야곱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넘어서 가정 자체가 멸절할 수 있는 위기 앞에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넘어 가족 공동체 모두에게 각자의 우상과 장신구를 땅에 묻고 베엘로 올라가야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진실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큰 위기 앞에서 모든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저마다의 사연을 뒤로하고 베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베엘로 올라갈 때에 야곱 자신과 그 가정이 화가 아닌 복을 받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첫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 압박 강가에서 새롭게 된 자신의 정체성을 베엘에서 다시 확인(창세기 35:10)합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정을 통해 얻는 약속으로 갱신(창세기 35:11)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은 참된 복을 가장 큰 위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론과 기술로 설명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근원적인 존재의 힘,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그의 인생과 망가진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키며 내일의 약속으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5월 따뜻한 봄날 가족들과 함께 봄나들이도 좋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십시오. 가정 가운데 은혜가 머무는 자리를 새롭게 단장하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치유와 회복, 변화와 성숙이라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가정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복과 은혜의 삶을 기꺼이 담아 주실 것입니다. 봄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때가 왔습니다. 베엘로 올라가십시오. **만남**



강승훈 목사
강북·도봉교구
상담부

저희의 지금 이 모습, 어머니의 기도 덕분

어머님 죄송합니다. 큰아들이 곁에서 모시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일찍이 시작한 외국 유학 생활 이후 캐나다에 정착하면서 어머님 곁을 멀리 떠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너무 큰 사랑을 쏟아 주셨는데 아들은 당신 위해서 해드린 일이 별로 없네요. 멀리서 어머님을 위해 하는 일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어쩌다 찾아보면 “우리 캐나다 아들 왔어?”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 주셨죠.

어머님은 당시 한국에서 최고 명문 초등학교인 덕수국민학교에 저를 들여보내려고 광화문(신문로)에 이사하셨죠. 덕분에 저는 훌륭한 선생님의 좋은 교육을 받는 혜택을 누리면서 좋은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진학에서 일차 명문교에 떨어지자 두말 없이 저를 대광중학교에 보내셨죠. 그때의 저는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광중·고등학교 6년의 학창 생활은 가장 아름다운 추억들과 좋은 신앙과 성품을 길러준 시기였습니다. 만약에 미션스쿨이 아닌 최고의 명문고나 대학에서 청소년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냈더라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세상의 야망을 좇아 살았을 겁니다. 어머님의 판단과 선택은 두고두고 옳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여러 번 실수했던 저를 위해 당신은 그저 기도하실 뿐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어머님의 기도 음성이 매우 익숙했습니다. 밖에 나가 실컷 놀다 돌아올 때 들리는 어머님의 기도 소리에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언제나 저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음성입니다. 기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서 책을 펴고 숙제나 공부를 하는 척했죠. 어머님은 그야말로 경건의 여인이셨습니다. 늘 성경책을 옆에 두고 바쁘신 일손을 놓으시고 구절구절 읽으시면서 말씀을 가까이하셨죠. 그리곤 기도하셨습니다. 주일은 어머님께 교회의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하실 일을 해 놓으시고 서둘러 제 손을 붙잡고 아버님과 함께 교회로 발걸음을 재촉하셨죠. 어머님에게서 주일의 의미를 배운 저는 지금껏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목회자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어려운 개척교회를 위해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건축하는 교회에 종탑 건축비를 건네기도 하셨습니다.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네 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신앙적 헌신에 큰 비중을 두셨습니다. 권사로서 교회에 봉사하시는 일에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으셨는지요. 구역장, 지역장, 여전도회, 북한선교, 상담부 등등 많은 분야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돌보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



2019년 추석을 맞아 영락노인전문요양원에 계시던 어머니(故 이확실 권사)를 찾은 4남매 내외. 제일 왼쪽이 필자 김락훈 목사.

해 애쓰신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그게 너에게 복이 되는 일이다” 당신의 희생적 봉사가 하늘을 감동하게 해 슬하의 네 자녀 모두 모범적으로 성장하여 복된 삶을 살고 있으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어김없이 두 자녀씩이니...

어머님은 지난 4월 1일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좀 더 세상에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면 한국에 들어가 마음껏 어머님과 동생들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려 했습니다. 먼 외국 생활로 해드리지 못한 것을 많이 누리시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주님을 뵈는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봅니다. 주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하실 일이 거기서도 있으신 모양입니다.

어머님이 자식들에게 남겨주신 그 크신 사랑과 신앙의 유산을 저희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도 저희 네 자녀와 손자 손녀들, 그리고 증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지금 모습은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 아니던가요? 우리가 어머님을 다시 뵈는 때 어머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결과로 맺은 인생 열매를 우리 네 자녀가 보여드릴게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저의 어머님이셔서, 신앙의 어머님이셔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캐나다에서 큰아들 락훈 올림
아내 미숙, 아들 올빃(Allbright),
늘빃(Noelbright)과 함께

내 어머니의 우선순위

#1 어머니의 투박했던 신앙교육

주말이 며칠 남지 않았을 즈음, 배가 너무 아파서 식은땀을 흘리는데도 기어코 결석은 아니 된다고 초등학생인 저의 작은 어깨에 가방 보따리를 들쳐 메게하고 등 떠미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어머니를 원망할 새도 없

이 이를 악물고 학교에 갔습니다. 주일이 되어도 무슨 데자뷔처럼 누군가가 배 속 창자를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두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교회도 갔습니다. 어쩔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다음 날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되어 동네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해 급히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어머니의 말씀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배에 남겨진 흉터를 볼 때마다 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한 번 빠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차하면 언제든지 제쳐둘 수 있었던 것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두는 것 말입니다.

#2 주일 성수가 최우선이었던 어머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마가복음 2:23~24)



주일 아침이면 교회 갈 준비로 항상 분주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왼쪽 첫번째 정장차림의 아버지, 가운데 줄 오른 쪽이 어머니, 앞줄 가운데가 형, 그 오른쪽 사내아이가 딸자



왼쪽부터 필자와 아버지, 형과 어머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불도 피우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논쟁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하신 안식과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는 주일이 다른 개념이지만 위 말씀의 모습과 유사한 주일성수에 대한 질문을 지난 10여년의 사역현장에서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일차원적으로는 주일에만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 시험이 진학이나 취직에 꼭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부터, 학교의 주일자율학습, 가족의 경조사, 주말근무 등 다양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주일의 신학적 개념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례적인 팬데믹 환경 속에서 주일성수의 방법론까지 다방면으로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부로 나갈 것인지, 웹으로 모일 것인지, 디지털대면은 어떤지, 온라인예배는 적합한지 말입니다.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

어릴 적 어머니의 투박한 신앙교육은 어떤 점

에서는 마치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일을 지키고 학교에는 결석을 앓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어머니의 율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의 진의는 그 껍데기가 벗겨진 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율법이 제정되었고, 율법을 지키는 열심도 생명을 살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어머니의 신앙을 회고해 보면서 주일 성수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남**



윤연상 전도사
북한선교부



한 세기를 살아내신 1921년생 나의 어머니

1921년생 나의 어머니 이. 경. 일.

10대에 일제강점기를 겪고 스물넷에 8·15광복, 서른에 6·25전쟁과 피난 살이를 체험한 우리나라 역사의 산증인인 어머니를 생각하면 숙연해진다.

어머니 세대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 온갖 역경을 이겨낸 고마운 세대다.

나의 부모님께서는 황해도에서 오빠, 언니들을 이끌고 나오신 뒤 서울 제기동에 터를 잡고 크게 포목점을 하셨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까지 한복을 팔고 맞춰주는 일로 생계를 책임지셨다.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이면 외할머니와 온 가족 모두 버스를 타고 창경원에 벚꽃놀이 가고 도봉산으로 소풍 갔던 기억들이 떠오른다.

김장을 하면 배추를 100포기씩 담가 독을 문었다. 김치독에서 꺼낸 김치로 겨울밤이면 김치말이밥을 맛있게 먹던 추억, 화롯불에 밤과 고구마를 구워 먹던 일, 홍릉산 옆 큰집에 계시던 천사표 외할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홍릉산이든 어디든 따라다녔던 기억들...

연세가 드셔서 가게를 접은 부모님께서 영락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영락동산에 계시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우리 4남매 모두 영락 교인이 되었다.

어머니는 97세 가을까지도 막내딸인 나와 동행하여 수요일평생대학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며 전철을 타고 다니셨는데 2018년 1월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이후, 4년째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계신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창을 사이에 두고 전화기로 잘 안 들리는 말소리를 들으며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어느덧 면회 시간 10분이 끝난다. 휠체어를 타고 요양보호사와 들어가시는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려온다.

코로나19도 언젠가 끝나겠지. 어머니 손도 잡아 보고 집에 모셔서 증손녀도 안아보시고 함께 함박웃음 웃을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앞으로 나의 삶도 언젠가는 홀로 보낼 날이 오게 될 테지. 그 외로움과 허전함, 막막한 시간을 오로지 내 곁에 계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 숨 쉬는 끝 날까지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한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에 벚꽃잎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 모두가 행복하길 기도합니다. **만남**

사모곡

김순자 권사 _ 인천교구

어머니!
깃 맑은 연보랏빛 한복이
너무도 잘 어울리시네요.

고달픈 삶의 여정에도
그 마음 늘 정갈하여
당신만 아는 소망의 노래로
원추리꽃 같은 딸 키우셨지요.

세모시 짜시던 여름 내내
북은 부지런히 춤을 추고
잉앗대 끼욱끼욱 울어대면
땀꽃 만발하던 당신의 몸, 그 몸.

아버지는 서울 가시고,
나무하러 가신 어머니 찾아
동생을 업고 걸어가던 길
아가배, 도토리, 하얀 들국화...
그때는 괜히 눈물이 나네요.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 헤치고
생솔가지 치시던 새벽,
그저 서 있는 아이가
그래도 얼마나 힘이 되시던가요?

어머니~
나날이 은발 흐드러지고
세월의 그림자 진해져 가도
나는 영원히 기억할래요.
연분홍 저고리
비로도 치마 고왔던
내 어린 날의 어머니.

思
母
曲

가족단톡방에서 매일 말씀 묵상으로 예배

-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사랑으로 일하고 계심을 나누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은 부모님, 저, 동생 이렇게 4인 가족입니다. 부모님 모두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모태신앙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 살았던 우리 집은 시내에 있는 교회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어머니가 이른 아침부터 교회 갈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데도 평일 내내 고되게 일해서 주말이면 늘어지시는지 하염없이 텔레비전만 보는 아버지는 어머니의 애간장을 태우시는 일로 이따금 교회 가는 시간에 실랑이를 벌이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은 언제나 어머니가 힘껏 애쓰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귀도 주시고 믿는 마음도 주셔서 교회 가는 발걸음이

언제나 즐거웠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가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부모님과 소통하지 않았고 부모님과의 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수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만나면 냉전이 흐르기 일쑤였고 잘못 스파크가 튀는 날에는 집안에 우당탕 소리가 났습니다. 매사 이기적이었던 저는 부모님과 소통하는 일에 마음을 담은 채 서울의 대학을 다니면서 몸과 마음이 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온 후 부모님께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아주 가끔 대학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피붙이밖에는 마음을 전할 곳이 없을 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털어놓으면 어머니는 가족 얘기를 꺼내며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시큰둥하게 반응하던 제게 어머니는 아직도 절대 잊히지

않은 딱 한 마디를 건네십니다.

“네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야.”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았고 오히려 반감만 생겼습니다.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라고?’ 이상하게 지워지지 않는 의문을 남긴 채 시간은 흘렀고, 저는 영락교회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영락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를 만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제 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버지에게 향했던 모난 마음들이 점점 누그러졌습니다. 그제야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닫게 되면서 인정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요.

작년부터 코로나를 계기로 시작한 매일의 말씀묵상을 가족 단독방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크게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간혹 올라오는 아버지의 “아멘”이라는 대답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먼저 어머니께 전화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평일 아침 시간에 어머니와 함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저였다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일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은 하나 되고 있어요. 오랜 시간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지키시고 이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을 감사함으로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사실 이전에는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걱정과 함께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



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을까? 다시 주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제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31)

이 말씀을 받은 저는 아버지의 믿음이나 가족의 구원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가 할 일은 주님을 믿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뿐임을 알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길 그리하면 주님께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남**



임유진 성도
대학부 엘리야마을 엘더

가족의 울타리를 넓히는 행복한 선택, 입양

저희 부부는 결혼 후 두 딸을 낳았습니다. 자식이 둘이나 있으니 충분하다는 저와 달리 남편은 아이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입양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또 아이를 갖자는 말은 단칼에 싫다고 했는데, 입양하자는 말을 듣고는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이 많으신지, 얼마나 그들 편이 되어주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아이는 보호시설이 아닌 가족 품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왔고요. 그러니 입양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내가 해야 하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저에게는 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난감했어요. 안 해야 하는데 안 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마시기 싫은)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4년에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난 한 아기가 우리 집 막내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겠지요? 그 아이가 올해 18살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우리 가족은 입양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입양을 소재로 한 동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했고, 아이가 낳아준 엄마에 대해 궁금해하면 아는 범위 안에서 쉽고, 정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비롯한 공개입양(입양아 당사자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는 형태) 가족들에게 입양은 그저 일상일 뿐입니다.

저는 공개입양가족 자조모임에서 지역대표로 10년간 봉사했고, 입양에 대해 알리고 교육하는 강사로도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제 아이가 살아가기에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어미로서 지닌 책임감이었어요. 이런 경험에서 얻은 정보와 통찰을 모아 2018년에 『너라는 우주를 만나 (IVP)』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이 책을 읽고 입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답니다. 이 글을 쓰기 직전에도 제 책을 읽고 입양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한 어머니와 통화를 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하나님은 저를 키우셨습니다.

지난 5년의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매년 4,000명 넘는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습니다. 한 해에 1만 명이던 때도 있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모 품을 떠난 아이들의 70% 이상은 보육원이라는 시설에서 삽니다. 보육원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입양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국내외 가정으로 입양되는 아이는 100명당

2~3명 정도에 불과해요. 그나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되면 아이들은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정부에서 쥐여주는 얼마 안 되는 지원금을 받아들고서요.

저희 막내딸을 비롯한 모든 입양아가 자기를 낳아 준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 지금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게도 그럴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오지 않는 부모를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아이가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것, 저는 그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어른들이 계시죠. 그러나 시설보다는 가정이 아이에게 나은 환경이라는 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아동은 가정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고, 전 세계 어른들이 <아동권리헌장>까지 만들어 약속했거든요.

아이를 사랑하는 어른들이 가족의 품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입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만 닿으면 지인들에게 입양과 관련한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알렸고, 그 결과 친정 언니와 친구, 선후배 등 주변 사람들이 입양했습니다. 입양하려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 입양을 결정하거나 아이와 잠깐 놀아주려고 입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평생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까다로운 입양 절차도 감당합니다. 아기를 낳은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모름지기 부모는 아이가 건강한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양육할 사명을 부여받은 청지기들이지요. 입양은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법적으로 내 자식이 되게 하는 과정이므로, 입양 부모는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넓게 보자면, 내가 낳은 아이나 입양한 아이나 결국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자기만의 개성을 지니고 세상에 옵니다. 부모란 그저 하나님의 아이들을 위탁받은 ‘무익한 종(누가복음 17:10)’일 뿐입니다. 아이를 지켜주는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성장하다가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는 게 가족의 원리 아닐까요. 입양은 그런 가족이 되는, 출산과는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저희 막내가 10살 때 ‘우리 가족’이라는 글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의 우리 가족과 죽을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 거다. 가족은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추억을 나누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도 한 아이에게 이런 가족이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만남**



김경아 작가
<진로와 소명 연구소> 성교육 팀장
『너라는 우주를 만나』 저자

2021년도 영락교회 가족사랑능력고사

성명

소속(교구)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일 잘 알 것 같지만 막상 누군가가 우리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취향에 관해 물어온다면 섣뜻 대답하기 힘들어 한참을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가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답해 보세요. 생각나지 않거나 모르는 건 서로 물어보며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자녀가 풀어보는 부모님편

기본 영역

1. 어머니/아버지의 생일은 ()년 ()월
()일 (양력, 음력)입니다.
2. 어머니/아버지의 혈액형은
(A, B, O, AB, Rh-)형입니다.
3. 어머니/아버지의 신발 사이즈는
()mm 입니다.
4. 어머니/아버지가 좋아하는 색은
()입니다.
5. 어머니/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입니다.

신앙 영역

1. 어머니/아버지가 주로 드리시는 예배는
()부 예배입니다.
2. 어머니/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장입니다.
3. 어머니/아버지가 즐겨 암송하거나
좋아하는 성경구절은 ()입니다.
4. 어머니/아버지가 즐겨 앉으시는 예배당
자리는 (예:본당 중앙 앞자리 등)입니다.
5. 어머니/아버지가 교회에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성도는()입니다.
6. 어머니/아버지의 요즘 가장 큰 기도제목은
()입니다.

추억 영역

1. 어머니/아버지의 어렸을 때 별명은
()입니다.
2. 어머니/아버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나요?
연 제 : ()년 ()월 ()일
어디서 : ()
어떻게 : ()
3. 어머니/아버지가 자녀(나 포함) 때문에 가장
기뻐던 일은 무엇일까요?
연 제 : ()년 ()월 ()일

어디서 : ()
무슨일 : ()

4. 어머니/아버지가 본인의 부모님(내게는 조부
모님)과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언제 어
디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연 제 : ()년 ()월 ()일
어디서 : ()
무슨일 : ()
5. 어머니/아버지가 1년 이내에 나(자녀)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

부모님이 풀어보는 자녀편**기본 영역**

1. 자녀의 생일은 ()년 ()월 ()일
(양력, 음력) 입니다.
2. 자녀의 혈액형은 (A, B, O, AB, Rh-)형
입니다.
3. 자녀의 신발 사이즈는 ()mm 입니다.
4. 자녀가 현재 소속된 곳은 어디입니까?
학생 : ()학교 ()학년 ()반
※ 성인이라면 직장-부서-직급 또는 마지막 학교 소속
5. 친구들 사이에서 자녀의 별명은
()입니다.

신앙 영역

1. 자녀가 교회에서 소속된 예배는 어디입니까?
주일학교 (예 : 소년부)부
※ 성인이라면 ()부 예배
2. 자녀가 좋아하는 찬송가/복음성가는
()장입니다.
3. 자녀가 좋아하는 성경 속 인물은
()입니다.
4. 자녀가 교회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성
도는 ()입니다.
5. 자녀의 요즘 가장 큰 기도제목은
()입니다.

1. 남편/아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장입니다.

2. 남편/아내가 즐겨 암송하거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입니다.

3. 남편/아내가 교회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성도는 ()입니다.

4. 남편/아내가 믿음 안에서 가장 감사함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복수응답 가능, 희망사항 포함)

- ① 가정예배 드릴 때
- ② 말씀묵상365 등을 함께할 때
- ③ 함께 기도할 때
- ④ 교회, 신앙 관련 대화를 할 때
- ⑤ 기타 ()

5. 남편/아내의 요즘 가장 큰 기도제목은 ()입니다.

애정 영역

1. 남편/아내의 얼굴 중에 나와 가장 닮은 부위는 어디인가? (예:코,눈 등)

2. 남편/아내에게 내가 가장 미안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 ① 내 기분이 안 좋다고 짜증냈을 때
- ② 집안일을 돕지 않았을 때
- ③ 생일이나 기념일을 까먹었을 때
- ④ 혼자 몰래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 ⑤ 기타 ()

3. 남편/아내가 요즘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분야는 무엇일까요? (복수응답 가능)

- ① 신앙/말씀 관련 영상
- ② 건강 관련 영상

③ 취미 관련 영상

④ 예능 관련 영상

⑤ 오디션이나 음악 관련 영상(트로트, 힙합, 명곡, 아이돌 등)

⑥ 기타()

4. 남편/아내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위로해주기를 바랄까요?

- ①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 ②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준다.
- ③ 함께 기도해준다.
- ④ 알아도 모르는 척 혼자 해결하도록 기다린다.

⑤ 기타 ()

5. 남편/아내의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아래의 예를 참조해서 빈 칸을 채워보세요)



※ 본 평가서는 홍보출판부 편집위원회가 인터넷과 관련 평가채자를 참조하여 만든 것입니다. 자기 자체평가시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기와 어린이들에겐 오감활용 신앙교육을

예년이었다면 봄을 맞아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요란하게 친구들을 만나 수다 떨고, 사랑하는 가족과 손잡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겠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우리의 일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늠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현실에 내던져진 우리의 삶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처절히 실감하게 합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믿음에 대한 본질적 고민과 관심 중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에 대한 깊은 패념은 우리 이마의 주름을 더욱 선명히 새깁니다.

가정이 답이다!

“무엇이 대안일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해결점을 도출하는데, 가정에 답이 있다고 확실히 말하고 싶습니다.

예부터 인간은 철저히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고, 배우고 가르쳤으며, 일하고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그랬기에 가정이 삶의 전부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와 흐름은 가정이 해야 할 역할들을 분리했습니다. 가정은 태어나는 곳도, 가르치고 배우는 곳도,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곳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르치고 대물림함에 있어서도 가정의 주도권은 교회로 일임되었습니다.

리스타트 _ 교회와 가정의 연계 교육

그러나 코로나19의 불가항력적 영향력은 가정을 다시 학교로, 직장으로, 놀이터로, 교회로 변모시켰습니다. 부모는 교사가 되어야 했고, 교회에 일임했던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명은 부여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같은 경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관해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배경도 없음을 절감했습니다. 영·유아·유치부는 ‘신앙달력(사진)’을 제작해서 각 가정으로 발송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일에 연합하여 연계 교육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달의 교육 주제를 바탕으로 실천해야 하는 과제(미션)를 제시하고, 아이들은 찬양과 성구 암송을 통해 주도적으로 주어진 미션을 해결해갑니다. 또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해당하는 달의 주제에 따라 신



양교육을 조력하고, 미션 수행 스티커를 제공해 아이들의 성취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달의 마지막 주간에는 각 가정의 신앙달력(사진)을 촬영하여 담임선생님에게 보내 주일예배 시간에 함께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감을 활용한 신앙교육

영아부와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은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 들리고 보이는 소리, 이미지에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며 움직입니다. 또 만지며, 손뼉 치며, 발을 구르면서 온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행위 등은 운동 능력 발달, 감각 자극, 구체적 경험 형성, 정서적 안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오감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앙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활동 교구와 재료들을 각 가정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받은 다양한 활동 교육과 재료를 활용하여 만들고, 움직이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 성장과

육체적 성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피로감과 두려움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적 부모이자 영적 교사가 된 여러분, 부족한 부분은 서로 메꾸게 하고 남는 부분은 나누게 하며, 힘들 때는 일으켜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락교회 표어 ‘눈을 들어 발을 보라!’를 따라 교회와 가정, 교사와 부모가 하나 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교육하고 걸어가는 2021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



홍지연 목사
영·유아·유치부

교회학교에 교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녹록지 않다.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교회가 희망이다. 그런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학교가 살아야 한다. 고등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등부를, 중등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년부,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 그렇게 부서가 살아야 한다.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가 교회학교 교사다. 하지만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가 적어지며 교사가 줄어들고 있다. 추수의 결실을 보아야 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것이다.

고등부 교사의 경우를 보자. 주일이면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뿐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교사가 오셨다고 하자. 그는 참된 열정으로 섬기려 한다. 신입으로 공동체에서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 전도사님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교사들의 이름도 모른다. 교사의 섬김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교사를 하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사명감으로 지원하게 되었는지 말 한마디 나눌 기회가 없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사들 사이에 마음의 문은 점점 닫히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현상 그대로 그렇게 보인다. 교사들이 그러하듯이 학생들

도 그러하다.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교사도 부모도 우리 어른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질 것이다. 아이들에게로 향한 사랑이면 충분하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정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교제해야 한다.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들, 교사도 학생도 교육과 훈련을 위해 많이 수고하신다. 훈련받은 성숙한 교사라야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 교사들의 믿음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할 수 있고, 부모의 믿음을 통해 보고 배우게 할 수 있다. 나 또한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고, 교사가 되어야 하기에 노력 또 노력하며 힘을 다한다.

아이들을 만나고 올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나는 무엇을 해주었나. 교사로서의 자세는 어떠하였던가. 다시 조급함이 밀려온다.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작은 믿음은 용량 미달이라 그러한지 버퍼링이 심하게 생기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교육도 변화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된다. 서로 다른 생각이라 할지라도 교사도 아이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하며 섬기려고 노력하는 교사가 되면 어떨까? 지혜로운 교사가 되어야 하고,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마음을 터놓을 만한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교사도, 아이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님께 내가 먼저 기도하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자. 공동체 섬김을 위해 내가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자.

계획이 있으신 주님께서 교사를 통해 역사하시고, 아이들을 통해 역사하시며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교회학교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

도의 섬김이 중요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도 중요하다. 모든 세대에 걸쳐 교회학교 성장을 지속해서 이루어야 한다. 교회학교는 미래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성장한 아이들이 교사가 되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인구 절벽의 시대에 교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교회학교 발전의 초석이 되어 미래의 교회를 책임지는 다음 세대 교사도 많아지기를 소망한다. **만남**



장계순 권사
마포·영등포교구
고등부 교사

새내기 대학부 벗님들을 움직이신 하나님

안태호 성도 _ 대학부 학생회 회계

저는 현재 대학부에서 학생회 회계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대학부 부활절 예배 때 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의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저와 함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과거 KBS 퀴즈쇼 '1대 100'처럼 게스트를 모셔서 벗님들과 퀴즈 서바이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두 분의 게스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대학부 벗님들의 자발적인 지원을 기다렸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부활절은 1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결국 아는 벗님들에게 연락해서 직접 섭외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회의하며 이번에 새로 대학부에 올라오신 49기 벗님들을 게스트로 모시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침 학생회 안에서 49기 벗님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어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 올라온 49기 벗님들께 연락했습니다. 연락하면서도 과연 많은 벗님이 보는 앞에서 무대에 나와 퀴즈 쇼하는 부담스러운 자리를 기꺼이 해줄 벗님이 있을까? 생각이 들었고 이 행사를 순조롭게 진행할지 무척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게스트가 없으면 저희가 준비했던 것 중 많은 부분이 무의미해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안이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대학부 부활절 프로그램 'Re vs 100' 진행을 맡은 필자(오른쪽)

그러나 걱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연락 받은 벗님들은 예상과 달리 흔쾌히 응해주었고, 생각 이상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프로그램에 임하여 예상보다 훨씬 수월하게 부활절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절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셨고 저희 생각보다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물 위를 걷다 바람을 보고 다시 바다에 빠진 베드로와 같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알았지만, 작은 불안감에 마음이 흔들렸던 믿음 없음을 고백했고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주님께 매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았던 저에게 친구의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사울 왕의 찬란했던 모습과 하나님을 떠난 후 악하게 변화한 사울 왕의 모습. 사울 왕이 기도하지 않아 어떻게 악하게 변했는지를 보여주시므로써 기도로 주님께 의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진행하는 내내 전혀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마다 알맞은 말들을 주셔서 많은 벗님과 기쁨으로 부활절 행사를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모든 걱정은 감사로 바뀌었고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모두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남**

대학부 종려주일·부활주일 특별예배

대학부는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다양한 형식의 특별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영광을 찬양했다. 3월 28일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을 맞아 대학부 예배는 테네브레 특별예배로 드렸다. ‘테네브레(Tenebrae)’란 라틴어로 ‘어둠’ 또는 ‘암흑’, ‘밤’이란 뜻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성목요일’부터 고난과 죽음을 겪으신 3일간의 기간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대학부의 종려주일 테네브레 예배는 최후의 만찬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의 말씀들을 봉독하며 기도와 찬양, 암전이 교차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예배 후에는 학생회의 진행으로 남산 산책로를 찾아 ‘묵상이 있는 남산 산책’을 가졌다.

부활주일이었던 4월 4일 대학부는 찬양 중심



의 부활절 기념예배를 드렸다. 찬양팀 ‘헤세드’가 ‘무덤에 머물러’, ‘예수 살아계신 주’ 등의 부활찬양을 중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인도했고 탁현수 목사가 ‘그 앞에 잡수시더라 (누가복음 24:36~43)’ 제목의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다. 예배 후에는 학생회가 준비한 ‘Re vs 100’ 서바이벌 퀴즈가 열렸다. **만남**

취재 하예훈 청년편집위원

로마서를 통해 빛과 생명을 마주합니다

- 2021 영락청년 선교비전

2021년의 완전한 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조금은 가벼워진 옷차림과 점점 짙어지는 푸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스한 봄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고 있을까요?! 감사해야 함을 알면서도 당장 마주한 현실 속에 작아져 좀처럼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의 여파로 영락청년선교비전을 진행할 수 없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선교비전'이라는 이름으로 7개국 11명의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말씀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동역하게 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로마서 8:17)

5월 21~23일 오프라인 집회

2021년 영락청년선교비전을 준비하며 청년 회장단 동역자들과 위의 말씀을 처음 마주했을 때 마음 한편으로 조금은 묵직한 부담을 느

꼈습니다. 아직도 '고난'이라는 글귀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을까?! 그저 좋고 편할 수만은 없는 걸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명의 때에 가장 어두운 순간(어둠)이 지나면 그 무엇보다도 비할 수 없는 가장 밝은 빛(광명)을 마주하게 되며, 엄동설한 속 바깥 마른 앙상한 가지(죽음)에서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초록빛(생명)이 움트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고난을 인내함으로 겸허히 감당해나가야 할까요. 이번 선교비전 말씀집회를 통해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머리와 마음의 거리 30cm에서 벗어나 로마서 말씀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말씀의 자리로, 영락 청년부가 초청합니다.

2021 영락청년 선교비전

고난의 시간, 영광을 위한 첫걸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17)

날짜 : 2021년 5월 21일(금)~23일(주일)

장소 : 영락교회 본당, 베다니홀

일정 : 5월 21일(금) 금요기도회(본당) 20시
5월 22일(토) 말씀집회(베다니홀) 19시
5월 23일(일) 오후예배(본당) 17시
강사 : 신도배 목사(서울드림교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클라우드 우리의 일상을 확장하는 통로



클라우드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연상되는가? 보통 문자 그대로 구름이 생각날 것이다.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은 애플이나 구글에서 사진이나 파일을 저장하는 서비스로 클라우드를 알고 있다. 이 서비스는 상당히 유용하다.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사진이나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클라우드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클라우드의 기능은 이보다 폭넓고 크다.

클라우드 개념은 1960년대에 나왔다. 당시는 소수 전문가 외에 컴퓨터를 접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많은 사람이 컴퓨터를 쓰기 위해 어느 한 곳에 하나의 큰 컴퓨터를 놓고 일반 사람들이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상상하던 사람들이 생겼다. 후에 큰 컴퓨터가 놓인 어딘가를 클라우드라고 지칭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있는 것이니 구름을 뜻하는 클라우드가 적당하다. 상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2006년 대중을 위한 첫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클라우드는 발전소와 비슷하다.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 소수 전문가만 전기를 만들고 연구했을 것이다. 일반인들이 전기를 쓸 수 있게 된 것은 발전소를 짓고 발전소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발전소와 각 가정 사이에 전선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었다. 발전소처럼 컴퓨터 자원을 공급하는 클라우드를 사용자와 연결하는 기술이 필요했다. 이것이 인터넷이다. 1960년대부터 꿈꾸었

던 클라우드가 인터넷이 발전한 1990년대 이후에야 가능했던 이유다.

이제 클라우드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정의할 수 있다. 클라우드는 “컴퓨팅 서비스(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때 인터넷을 통해 접근해서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클라우드의 성능과 편리성

클라우드는 간단히 프라이빗(private) 클라우드와 퍼블릭(public) 클라우드 형태로 구분한다. 전 세계 불특정 다수에게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퍼블릭 클라우드이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데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아마존 웹서비스가 현재도 시장을 리드하고 있고, 후발 주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맹렬히 추격하는 구도이다.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제한된 소



수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클라우드이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직원들이 접속하여 정보를 사용하는 클라우드를 만든다면 이것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이다.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망라한다. 클라우드는 몇 번만 클릭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 수 없는 고성능의 컴퓨터 기능을 제공한다. 아울러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준으로 구비하여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클라우드가 일찍 시작되었다면 가정마다 컴퓨터를 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성능이 개인용 컴퓨터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클라우드가 본격화되기 전에 집집마다 컴퓨터가 먼저 확산되었다. 발전소와 송전탑 건설이 늦어지는 사이에 전기가 필요했던 대중이 집집마다 작은 발전기를 사서 사용했던 것과 같다. 클라우드의 성능과 편리성 때문에 가정의 컴퓨터 활용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최근 많은 사람이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PPT) 등 프로그램을 CD로 사서 설치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 클라우드는 더욱 새롭고 안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집의 컴퓨터는 클라우드와 연결하는 통로로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해외선교도 클라우드를 통해 가능

이제 클라우드의 개념과 장점을 이해했다면, 클라우드로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할 순서다. 우

리는 클라우드를 통해 고성능 컴퓨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각종 첨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예전에는 기술과 돈이 있는 소수가 사업을 했다면, 미래 기술은 클라우드를 통해 다수가 수월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미래를 주도할 수도 있는 구도이다. 영락의 젊은 세대도 클라우드를 잘 이해하여 많은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다.

크리스천인 나는 선교 관점에서 클라우드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주요 클라우드 업체는 전 세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을 쉽게 구축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바꿔 말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도 클라우드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나라말을 통역하는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도 클라우드가 제공한다. 클라우드의 인프라와 기술을 잘 활용하면 효과적인 선교가 가능하다. 부각되고 있는 클라우드가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와 도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만남**



강명구 집사
강남교구
아마존웹서비스(AWS) 기술파트너

코로나19 시대 우리 아이 수학 실력 어찌할까?

유대식 '하브루타' - 밥상머리로 불러오는 수학

우리 중학생 61%가 수학이 재미없다고

코로나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는 요즘, 아이들 수학 공부를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지요?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IT와 AI의 기반은 수학이라는데... 하 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수학 공부는 여전히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9년 TIMSS(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연구)에서 우리나라 중학생의 수학 성취도는 세계 3위, 과학은 4위로 평가되었습니다. 2011년에 1위였던 수학이 3위로, 3위였던 과학이 4위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더 우려되는 것은 '수학을 싫어한다'라고 답변한 중학생이 61%,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30%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수학에 대한 흥미도는 39위로 세계 최하위의 불명예를 기록했지요. 2021년 대학입시 수학에서 <미분과 적분>이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이 되어 공과대학에 진학할 인적자원까지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다수 학생이 <미분과 적분>을 어렵다고 생각하여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수학에 대한 가치관, 친근함, 흥미도, 자신감 등을 학술적 용어로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자녀들의 낮아져 버린 수학적 효능감을 올리는 방안을 '하브루타(havruta)'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교육 방법에 착안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로의 통찰력을 공유하는 '하브루타' 교육법

지구촌의 경제, IT, 학문, 예술, 문화를 주도하는 걸출한 인물 중에 유대인들이 유독 많은 사실을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1901년부터 2018년까지 노벨상 수상자 중에 유대인이 무려 200명(전체 수상자의 22%)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인구 0.2%에 불과한 유대인이 이처럼 탁월한 인물을 배출한 이유는 그들만의 독특한 공부 방법에 있습니다.

유대인은 만 3살부터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시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토라>는 구약의 모세 5경이고, <탈무드>는 유대교의 율법과 지혜에 관해 구전되어온 것을 율법학자들이 해설을 붙여 집대성한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 독특하면서도 방대한 분량의 교재지만, 핵심은 토론과 논쟁 중심의 공부법인 '하브루타'에 있습니다. 하브루타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끼리 성경이나 탈무드를 주제로 토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유대인에게 안식일(금요일 저녁~토요일 저녁)



은 성경과 탈무드를 중심으로 토론하며 생활의 지혜를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아빠는 교육의 리더로, 엄마는 넉넉하고 따뜻한 요리사의 역할을 하며 안식일 식사 시간을 ‘밥상머리 교육’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룹 토론보다는 하브루타로 친구끼리 둘씩 짝을 지어 토론하는 것이 독특하지요. 이는 정답을 맞히기보다는 학습 과정에 목적을 두어 서로의 통찰력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따라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하브루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부모와 함께 나누는 수학 이야기의 효과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 연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구는 부모가 학창 시절 수학 성적이 좋고 안 좋고에 관계없이 오로지 자녀들과 수학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룹과 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일정

기간 실험한 후에 보니 아이들의 수학 성적에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차를 탔을 때, 산책할 때, 식사할 때 자연스럽게 수학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이 수학 공부에 동기 부여가 되고 결과적으로 성적이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온 거지요. 말씀드렸던 하브루타 공부법과 유사점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호기심이 발동하시지요? 그러나 부모가 수학 문제를 함께 풀자고 했을 때 좋아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함께 일상 속에서 호감을 느끼고 대화를 했을 때 아이들의 무의식에 효능감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가 미처 알지 못했던 소소한 수학적 사실, 가령 A4 용지가 만들어진 수학적 이유, 1, 2, 3...9까지 9개 숫자로 100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성경에 처음 나오는 파이(π)의 개념, 해바라기 꽃에서 발견하는 황금각, 스마트 폰의 숫자가 만드는 신기

한 수의 향연, 사운드를 압축 전송할 때 사용하는 삼각함수 등을 부모가 먼저 흥미롭게 탐색하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이끌어간다면 장차 복잡한 수식을 배울 아이들에게 수학이 친근하게 다가가겠지요.

어린 자녀가 바쁜 엄마와 아빠랑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수학 놀이로는 무엇이 좋을까요? 유아들은 EBS <수학이 야호>¹를 함께 시청하면서 부모와 함께 수학 개념을 노랫말로 만든 찬트(chant)를 부르며 오감 놀이를 해주면 좋습니다. 초등생에게는 언어교육도 되고 수학의 효능감도 높이는 수학 동화나 위인전이 좋습니다. 어릴 때 읽는 과학자, 수학자들의 이야기는 순수한 마음에 깊이 각인되지요. 필자의 경우 초등생 때 <소년조선일보>에서 읽었던 갈릴레이와 동화책으로 읽은 뉴턴 이야기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답니다. 어린이용 수학자 위인전의 경우는 <가우스>가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부모가 가우스 외에는 잘 모른다는 증거지요. 이제는 부모가 한 걸음 앞서 위대한 수학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수학에 대한 효능감도 향상되고 아이들과 대화 매개체로도 활용됩니다. 중학생 부모라면 부모가 먼저 수학 관련 대중서를 공부하시면서 다가가셔야겠지요.

‘모소 대나무’처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중국 극동지방에는 4년 동안 고작 3cm밖에

못 자라는 ‘모소 대나무’라는 특이한 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5년이 되면서 하루에 30cm씩 고속성장을 한다고 해요. 믿어지지 않는 슈퍼급 성장! 마침내 6주가 지나면 무려 15m의 높이로 자라 거대한 대나무 숲을 만들어버립니다. 더디 자란다고 그만 파서 버렸더라면 놀라운 성장력은 영영 잘려 버려지는 것이지요.

영락의 성도님들! 자녀의 수학 능력이 부모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조급하신가요? 모소 대나무처럼 깊고 넓게 뿌리를 뻗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성장하는 ‘대기 만성형’ 아이일지 모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음 이니라’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 하십시오. 필자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디 수학 내용이 일상 언어로 변신하여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유연한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창조적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만남**



계영희 집사
안양·수원교구
고신대학교 명예교수

¹ 2016년 <한글이 야호>의 후속작으로 방영된 EBS 유아 수학프로그램으로 필자가 자문했음. 5~7세 유아를 대상으로 52주(회당 13분 방영) 동안 수, 도형, 통계, 패턴, 논리 등의 수학 개념을 찬트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것으로 현재는 YouTube에서 볼 수 있음.

청년선교회가 궁금해요 - Q&A



신입청년

안녕하세요! 청년선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청년선교회

네 반가워요~. 청년선교회는 청·장년들이 함께 모여 성경공부·나눔·교제·선교·봉사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줄여서 청선회라고 하지요^^



신입청년

아 청선회! 모임이 따로 있나요?

청년선교회

원래 주일 오후 3시 기념관 503호에서 모임입니다. 요즘은 오프라인 모임이 어렵지만, 대신 매주 수요일 20:30~22:00에 ZOOM으로 성경공부모임을 하고 있어요! 영락교회의 판타스틱 듀오 조두형 목사님 & 김우람 전도사님이 함께해 주신답니다~ 요렇게요~



신입청년

오 다들 표정이 밝으시네요^ ^

청년선교회

네 ㅎㅎ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주일 오후 3시 모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청선회 가입 기준이 있을까요? 결혼한 사람도 가능한가요?

2021년 기준으로, 1977년생까지(45세 이하 청장년)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신입회원은 1979년생까지(43세 이하 청장년)입니다. 결혼한 분도 가능하고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45세 이하면 함께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네. <http://yn3040.kro.kr>에 접속해서 연락처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일주일 내로 연락드립니다~. 간단한 통화 후에 조를 배치 받고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청선회 내부행사로 부활절 행사, 야외 성경공부 등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선교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 곧 뵈게요!

주일모임 : 매주 주일 15:00~17:00, 기념관 503호(조별)

성경공부 : 매주 수요일 20:30~22:00, ZOOM 온라인

가입기준 : 43세 이하 청·장년 (2021년 기준 1979년생까지)

가입링크 : <http://yn3040.kro.kr/>

관련문의 : 황성수 회장 010-7791-5118 / 이보미 신입담당 010-9647-2080

외국인 선교, 교회 안에서도 이뤄집니다

2017년, 2년에 걸친 영락선교훈련학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선교사님의 경험담을 들을 때면 나도 언젠가는 선교 현장에 가서 듣고 배운 대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기대와 설렘으로 강의 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비록 해외는 아니지만, 교회 안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러시아, 중국, 몽골, 네팔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외국인예배와 이 분들이 고향 음식을 만들어 나누고, 찬양 연습과 말씀을 공부하는 쉼터가 바로 그 선교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교회 봉사자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 선교훈련학교에서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1. 강대상 주변 정리, 주보와 헌금 봉투 준비, 테이블 의자 정돈 등 예배를 준비합니다.
2. 예배 전에 영상, 음향 장비를 점검하고 소소한 문제는 직접, 큰 문제는 교회 내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해결합니다. 단,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3. 예배 참석을 위해 입장하는 성도들을 현지 말로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4. 그림 성경책, 색연필, 도화지를 준비해서 성도들의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5. 예배 참석 성도 수를 예측하여 교제 시간의 간식과 음료 등을 준비합니다.
6.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칩니다.
7. 성도들과 함께 동대문 등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나가 전도합니다.
8. 쉼터에 필요한 물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9. 본국으로 돌아간 성도들과 연락하며 현지에서도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10. 성도 개개인과 대화하며 이해하고 기도 제목을 알아 중보기도합니다.

■ 외국인예배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봉 사 자
러시아어예배	1시~2시30분	봉사관 501호	임소희 성도
중국어예배	1시~2시30분	봉사관 304호	송영자 권사
몽골예배	3시~4시30분	봉사관 501호	이혜영 권사
네팔예배	11시~12시30분	봉사관 501호	백정희 권사



네팔예배 찬양과 경배



러시아어예배 새신자 환영



몽골예배 성도들의 쉼터 교제 (2020년 1월)

우리 교회 외국인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은 대부분 현지어를 못하지만, 대화는 됩니다. 대화는 말 이외에도 마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은 몽골예배 성도가 심장이 좋지 않아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일이 있었는데, 저와 함께 가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분이 의사와 병에 대해 원활하게 대화할 정도로 우리말을 잘하지 못했고, 입원과 수술 절차 등 병원 행정을 모르니 사정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냥 옆에 있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함께 하며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선교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외국인 선교,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 외국인 예배드리는 장소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만남**



정재훈 집사
용인·화성교구
선교부 외국인예배 총괄팀장

5월 30일 사랑하는 분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현실이지만 전도가 막혀 있는 듯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내가 함께할 테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막혀있는 홍해를 바라보고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함께 순종하여 홍해로 손을 내미시어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1. 함께 기도합니다. - 기도지원 365

전도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신 분들을 교회의 중보기도팀과 전도부 실행위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2. 은혜로운 성경구절을 전해드립니다. - 문자지원 365

매주 금요일, 전도대상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대상자가 동의한 분만 신청 가능)

3. 전도해 드립니다. - 전도지원 365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훈련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대상자가 동의한 분만 신청 가능)

4. 정성스런 선물을 드립니다. - 복음선물 365

교회에서 선정한 책자와 책갈피, 그리고 정성스런 손편지가 담긴 복음선물 꾸러미를 선물해 드립니다.

(신청: 5월 9일까지, 배부: 5월 16일부터)

5. 전도 용품을 지원합니다. - 전도용품 365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매주일 전도부 부스에서 전도용품을 나눠드립니다.

위의 전도지원은 교회 홈페이지 배너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지원 신청 페이지



영락교회 전도부
유튜브계정

전도부 유튜브(유튜브에서 ‘영락교회 전도부’ 검색하면 바로 연결)에 위임목사님의 은혜로운 3분 메시지가 매달 한 편씩 제공되며, 전도 세미나가 이번 캠페인 기간 중에 업로드 됩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전도 영상과 전도 간증 등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제공 전도부

2021 영락교회 전도 캠페인

전도대로 365

기도지원365

문자지원365

전도지원365

복음선물365

전도용품365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2021.05.30
예배로의 초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 전도부

“삶에서 삶으로, 누림에서 나눔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담은 봉사가 더욱 필요하다. ‘들음에서 행동으로’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회봉사부는 사회적 약자에게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구제와 봉사에 주력하고 있다.

1945년 12월 2일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후 오늘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영락교회를 이룬 큰 축은 교육·선교·교제·봉사이다. 사회봉사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밭 가꾸기’를 실천하고자 한다. 봉사는 은혜를 받은 이들의 헌신과 사랑의 나눔을 통해 말씀을 실천하는 감사의 현장이다.

눈을 들어 받을 보는 사회봉사부

사회봉사부는 현재 가정복지팀, 이웃섬김팀, 청소년섬김팀, 주일봉사팀, 찬양팀 등 5개 팀이 가정 방문과 병원 섬김, 저소득 청년을 위한 따뜻한

밥상 배식지원, 서부역 노숙인 섬김, 돌봄 취약 어린이를 위한 도시락 만들기, 청소년 시설 학습지도, 생필품 수집 및 배분, 사회봉사금 모금, 찬양을 통한 교회 내외 행사 지원 등 실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도움을 드리는 일부터 교회 앞 백병원 환우들의 세발/세안 봉사, 중구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치·연탄 나눔 같은 봉사활동이 있는가 하면, 해마다 지하철 을지로 3가역에 성탄 트리를 세우고 관리하는 것도 사회봉사부 사역 중 하나다.

사회봉사부의 2021년 모토는 올해 교회 표어 ‘눈을 들어 받을 보라’에 맞추어 ‘눈을 들어 받을 보는 사회봉사부’이다. 올해 사회봉사부장으로 새로 부임한 이홍노 장로를 중심으로 ‘삶에서 삶으로’, ‘누림에서 나눔으로’를 삶의 현장에서 일궈내고자 부서 조직을 개편했다. 세 명의 차장 집사를 중심으로 기존 ‘~안다’형의 사역을 정비하여 포스트





사회봉사부는 다양한 구제 사역과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사랑밭 가꾸기'를 실천하고 있다(2019년)

코로나 시대 맞춤형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사역 개발, 재원 확충 및 이를 도울 홍보 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를 통해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사회봉사부가 계획, 진행하고 있는 중점 추진 사역은 다음과 같다.

- 가. 기존 사역 지속추진 및 개선보완
- 나. 신규 사역 발굴 및 추진
- 다. 봉사인력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
- 라. 봉사위원 교육 및 영성프로그램 개발·시행
- 마. 사회봉사부 사역에 대한 홍보 강화
- 바. 봉사위원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

적극적 참여로 사회봉사 영역 확장 모색

사회봉사부의 올해 새로운 계획 중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사회봉사주일 찬양예배를 '사회봉사주일 헌신예배'로 드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봉사가 특정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서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사역으로 인

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싶다. 헌신예배에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다양한 구제사업과 기존 지원 사각지대로 확인된 각종 사역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봉사 현장의 모습을 전하는 홍보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구제 사역과 봉사참여 방법을 다각화함으로써 다가오는 시대에 사회봉사 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그동안 지원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재점검하고 현장 상황 중심의 효율적 사역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흥노 장로는 “눈을 들어 발을 보는 사회봉사부의 사역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사랑의 텃밭인 영락교회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생한 사랑의 실천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영락교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장로는 “섬김과 나눔의 봉사 현장에 함께 해달라”며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를 요청했다. **만남**

제공 사회봉사부

우리는 가족이에요



온라인으로 연결된 기도의 자리. 올해 1월 겨울수련회 GBS(그룹 바이블 스토리) 온라인 모임에 참여한 대학부벗님들.

저녁 노을 진 후 어스름 속에서 파스한 어머니 등에 업혀 잠들던 때가 엇그제 같습니다. 자신의 등을 내어주던 젊은 날 어머니의 등은 곧고 반듯했습니다. 어느새 굽이굽이 산등성이처럼 굽은 것은 어찌면 세월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며, 고된 시간으로 인해 주름이 깊어지고, 자식들을 위해 스스로 작아지셨던 그 세월이 고스란히 어머니의 등에 담겨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자식들을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며 그 자리에서 그대로 건강하게 계실 줄 알았던 어머니께서 유난히도 추웠던 올겨울 갑자기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갔는데 평소 30~40분이면 갔던 그 길이 그날따라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뇌경색이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되어 우측 전신마비가 왔고, 뇌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경

과를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한없이 편안했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던 분이었는데 응급실에 앉아 이제는 굳어서 휘어버린 주름이 가득한 어머니의 손을 보며 너무나도 철없이 살아왔던 저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젊은 시절 꽃다운 청춘을 바쳐 자식들을 꽃피우기 위한 거름이 되셨던, 이제는 힘없이 병실에 누워계신 어머니를 보며 한없이 눈물 흘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실에 오랫동안 있을 수 없었지만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침대에 누워계시던 어머니를 보기 위해 오고 갔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보며 무심했던 시간은 가족 간의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서는 손발톱을 깎을 수 없어서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발톱을 깎아드렸는데, 어머니는 힘없는 손가락으로 창밖의 한 뼘 정도 되는 창가 너머로 길게 뻗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나뭇가지 사이에 까치가 집을 짓고 있어.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 나뭇가지를 물어오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데 까치가 쉬지 않고 계속 가지를 물어와. 까치가 집을 다 짓기 전에 여기 같이 병실에 있는 분 중에 누가 먼저 퇴원하겠느냐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어.”

감사한 것은 그렇게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까치가 나무에 집을 다 지을 무렵 어머니께서 저의 부축을 받으시며 뇌 집중 치료실에서 가장 먼저

퇴원하여서 요양병원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늘 변함없이 저에게 가족이십니다.

저에게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하며 힘이 되어준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락교회’, ‘대학부’라는 가족입니다.

영락교회 대학부에서는 리더들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셀(cell)’이나 ‘조’, ‘반’이라고 부르지 않고 리더의 이름을 붙여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처럼 기쁠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변함없이 함께 또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거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19 새번역성경)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족’이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가족’에게도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



박성울 전도사
대학부



구역식구들이 사랑스러워요

햇빛이 곱게 드리우는 창가에 앉아 봄빛을 만끽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생긴 저의 일상입니다. <말씀대로 365> 묵상을 시작하고 구역식구들과 365일 끝까지 가자고 서로 격려하며 시작한 날이 벌써 넉 달이 넘어가네요.

작은아이가 군대에 간 이후 가족은 한 교회를 다녀야 한다며 남편이 옮기기를 권했습니다. 물론 저는 마음속으로 환영했지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이니까요. 결혼하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남편과 동네교회에 다니다가 작은아이가 지금은 작고하신 이희령 장로님(영락고등학교장)의 권유로 먼저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아들이 군에 입대한 후에 영락교회 새신자부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입대하여 '우리가족 모두 영락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라며 기뻐했지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영락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한달에 한 번 구역장님께서 『만남』을 들고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며 기도해주시고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집사교육을 받고 난 해 교구목사님을 따라나선 대심방에서 구역식구들에게 다음 구역장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집사가 구역장이라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우리 구역식구들이 지금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김선애 권사
관악·동작·금천교구 17구역장

이전 구역장님과 함께 오래 기도해서 태어난 종언이가 본당 앞에서 꼬물꼬물 울동하며 의젓하게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요. 2층에서 사진을 찍어 봅니다.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종언이가 아주 사랑스러워요. 부부가 다른 분들보다 뒤늦게 집사 직분을 받으셨지만,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며 친교 하는 날들이 오리라 기대합니다.

“구역장님 제가 올해 4남 선교회 회장직을 맡게 되었어요. 기도 많이 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전화로만 만나는 유 집사님께서 올해 초에 전해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구역장을 맡은 첫 번째 소임으로 10년 넘게 교회출석만 했던 청년에게 제직으로 추천하여 집사직분을 받게 했습니다. 직장 일에 바쁘지만, 교구에 4남 선교회가 없어 다른 교구 소속 모임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공원에서 하는 남선교회 행사에 간다고 신나했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이제 본인 명의의 집을 사서 이사했습니다. 심방을 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이 잠잠해지면 영락교회 교표를 현관문에 딱 붙여 주고 싶습니다. 어서 빨리 이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니 정말 감사하고 멋진 일이 아닌지요!

의논할 이 없이 혼자서 구역을 담당하며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반짝반짝 빛나는 이 권사님을 우리 구역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싶던 구역예배를 둘이 드렸습니다. 우리 구역은 전에도 구역예배가 없었거든요. 구역공부를 둘이 앉아 할 때 너무 신났습니다. 예쁜 세 자매도 같이하고, 남편들도 한 번씩 같이하고... 아! 그 시절이 그리롭습니다.

권사와 집사추천은 구역장의 소임입니다. 구역장이라도 그분들의 신앙을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을 보고 추천합니다. 그다음은 목사님께서 대화하시고 문답하시며 결정하시는 것이지요. 추천한 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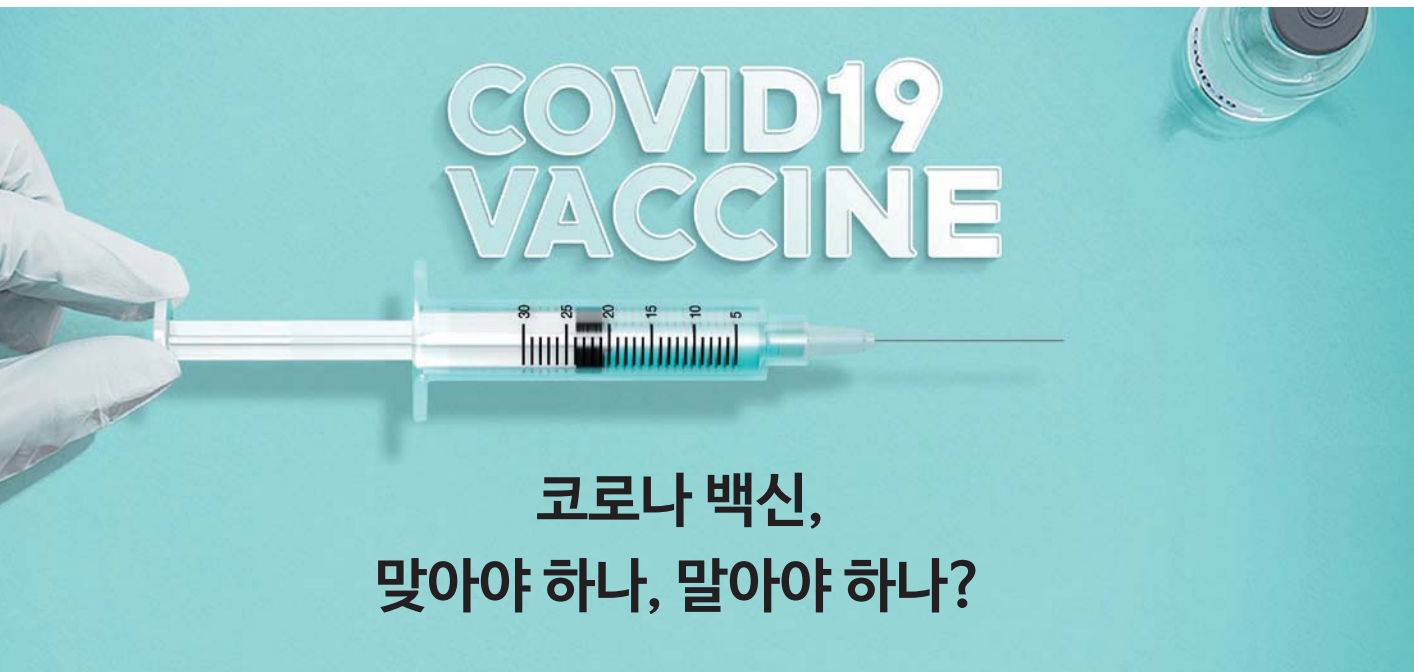


질병이 찾아와 건강을 되찾지 못해 누워 계신 오 집사님, 병간호하시던 이 집사님의 아픔을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안타까움에 마음이 저려옵니다. 방문하여 함께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날이 언제나 올까요. 남편을 앞서 하늘나라 보내신 어르신은 큰 집이 버거워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고 이제 양로원으로 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역 교적부를 보며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며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채워지리라 믿고 기도 합니다.

이제 교적부 정리를 해야겠네요. 입교하여 세례도 안 받고 그대로 있고, 대학 졸업이 언제인데 아직 유치부 사진이라니...

오늘도 전화를 돌립니다. “〈말씀대로 365〉 잘하고 계시지요?” **만남**



코로나 백신, 맞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요즘 교회에서 교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코로나 백신 맞아요?”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백신은 가능한 맞는 것이 정답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3월 7일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했고 5월 초에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백신이 효과 없다?

인터넷상에 많이 떠도는 말 중에 코로나19는 호흡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백신을 맞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 것은 몸 안에 항체가 생기도록 하는 것인데, 항체는 혈액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는 전혀 막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라면 독감 예방주사도 효과가 없어야 하고 폐렴 예방주사도 효과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가장 중요한 항체는 혈액 내에 존재하지만, 항체의 종류 중에는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더나에서 개발한

백신의 경우 폐에서 세포 밖으로 항체가 분비되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몸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세포 안에서 분열하여 숫자를 늘려야 하는데 백신을 맞으면 이러한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게 됩니다. 코로나19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연 백신은 안전한가? 부작용은 없을까?

백신은 우리 몸에 없는 물질을 우리 몸에 넣어주어, 거기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반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없는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보신 분 중

에는 주사 부위가 며칠 동안 빠근한 경우도 있고, 일부에서는 열이 나거나 근육통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드물지만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의 최소화 기술이 점차로 개발되었기에 이전보다 부작용이 아주 적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듯이 특이체질이거나 백신 보관이 잘못되거나 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새로 개발하면 몇 년간 백신 투여 임상시험을 하여 장기적인 부작용을 관찰하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길 때 일반인에게 투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의 경우는 이처럼 몇 년간 검토할 시간의 여유 없이 바로 접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작용에 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줄이는 기술들을 적용했기 때문에 기존 백신에 비해 부작용이 많거나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 농담으로 하는 얘기이지만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사망할 위험보

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러 보건소나 병원에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할 위험이 더 큽니다. 제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다음 날 가벼운 두통과 제법 심한 근육통이 있었으나 진통제를 복용했더니 괜찮아졌고, 이틀째부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RNA 백신(화이자·모더나 백신)은 더 위험하다?

현재 여러 회사에서 개발한 코로나19 관련 백신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개발되었고 효과도 가장 좋고 알려진 것이 화이자와 모더나라는 회사의 백신인데, 이 두 가지 백신은 소위 말하는 RNA 백신입니다. 이 중에 화이자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75세 이상의 어르신께 접종하고 있는 백신입니다.

지금까지의 백신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약화 또는 죽인 후 인체에 주입하거나, 더 안전하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일부분을 유전공학 기법으로 만들어서 인체에 주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의 백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RNA 백신이라는 방법입니다. 즉 바이러스의 단

 **RNA 백신** 현재 사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곧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안센 백신은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해 면역체계를 자극할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단백질의 일부분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주입을 하는 백신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은 RNA백신이라고 하는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직접 우리 몸에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을 만드는 전단계 물질인 RNA를 주사하는 새로운 형태의 백신입니다. RNA 백신은 단백질 백신에 비해 빠르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고(가장 먼저 만들어진 백신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에 변이가 일어나도 이에 대해 빠르게 대항한 새로운 백신을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RNA는 매우 불안정한 물질이라 그동안에는 백신으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화이자나 모더나사에서는 RNA를 안정적으로 몸 안에 주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최초로 사람에게 사용한 RNA 백신입니다.



백질을 직접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 내에 들어가서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RNA를 주입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방법은 백신을 빠르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백신 효과의 평가는 단시간에 가능하지만, 부작용의 평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 몇 년 지나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면 부작용에 대한 평가까지 종료하고 시장 출시까지 10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부작용 평가를 완벽히 마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기에 서둘러 출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상에서는 RNA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에 변화가 생긴다든지, 심지어는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지 하는 말까지 돌아다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RNA 백신은 새로운 방법으로 만든 백신이라서 기존의 방법으로 만든 백신에 비해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지만, RNA 백신이라 더 위험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주사 맞은 후 발생하는 혈전이란?

최근 갑자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외국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얀센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으로 인해 백신 접종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혈전”이란 피가 혈관 안에서 굳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해서 피가 나면 이를 멈추기 위해 피가 굳어 집니다. 이는 심한 출혈을 막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피가 흘러야 하는 혈관 안에서 피가 굳게 되면 혈관이 막히게 되겠지요.

그런데 백신을 맞았더니 이러한 혈전이 많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어 이에 의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3월 22일 현재 유럽에서는 2천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269명에서 혈전이 나타났고, 이 중 45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전은 인구 백만 명당 2~5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2,000만 명으로 계산하면 40~100명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백신 접종자 중에서 혈전이 적게는 2.7배에서 많게는 6.7배가 더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 숫자가 정말 많은 것일까요? 교통사고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1년간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과 사망이 10만 명당 각각 66.3명과 6.5명이니 2천만 명으로 계산하면 부상 13,260명과 사망 1,300명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차를 모두 없애자는 주장을 하지는 않지요.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현재까지의 결과로 미루어 혈전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경우, 즉 30세 미만 여성에서는 다른 종류의 백신(화이자 백신 등)을 맞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연령군이나 남성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따져볼 때 이익이 훨씬 크므로 백신을 맞는 것이 이익일 것입니다.

집단면역이 생겨야 한다는데 무슨 뜻인가?

집단면역이란 그 사회 구성원의 일정 숫자 이상이 면역력이 있으면 특정 감염병이 어쩌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더라도 널리 퍼지지 않고 저절로 수그러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집단면역이 생기는 것은 감염병의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홍역은 감염력이 매우 높은 병으로 감염률이 12~18, 즉 환자 1명이 12명에서 18명을 감염시킵니다. 따라서 감염력이 매우 높은 홍역이 지역사회에서 퍼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의 95%가 면역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반면 계절성 독감은 그해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성질에 따라 감염률이 1.3에서 3까지 차이가 크게 나는데, 감염률이 1.3으로 낮은 편에 속하는 바이러스 경우에는(환자 1명이 1.3명을 감염) 지역사회 인구의 23%만 면역력을 가지면 지역사회 전체로 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인구의 몇 퍼센트가 면역력을 가져야만 더 퍼지지 않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70%의 인구만 면역력이 있으면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증가하면서 80~90%는 면역력이 있어야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전체가 감염병에 대항하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백신을 맞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무라 하겠습니다.

백신만 맞으면 코로나19에 안 걸릴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100% 예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백신은 없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몸 상태나 면역체계의 상태에 따라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항체)이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신을 맞았어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몸 안에 생성되었던 항체가 사라지면서 면역력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방역 당국에서 걱정하듯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코로나19를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는 변이가 아주 잘 생기는 바이러스입니다) 기존 백신의 효능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한 후에도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마스크 사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은 부작용에 의한 위험에 비해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주 고령이시거나 심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암학회, 대한당뇨병학회도 암환자, 당뇨병환자는 꼭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서 코로나19가 극복되어 모든 교인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박도준 안수집사
서초교구, 의료선교부 차장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기쁨의 빛과 소망의 팔레트로 그려낸 그림

- 성경 구절을 그림으로 그리는 기독교화가 이호연

미술사에서 성경 속 이야기를 그린 화가들은 많이 있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피카소에 이르기까지 성경 속 이야기는 세월과 함께 흘러흘러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 왔다. 성경 속 이야기를 화폭에 담아낸다는 점에서 기독교화가 이호연(39·사진)도 그러한 작가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화백의 작품은 어딘가 결을 달리한다.



고 스쿠터를 타고 가는 배달부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성경이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작품 안에 현대식 빌딩이나 카페의 모습 등을 넣는다. 그의 이러한 작품들은 유머러스하면서도 진지한 사색의 기회를 준다.

이호연의 그림은 따뜻하다. 그림의 테마가 성경 속 이야기여서만이 아니라 색감과 형태를 정교

그림 속에 펼쳐진 우리 시대 예수님 이야기

그는 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옮긴 듯 투명하고 순수하게 성경의 이야기를 바라본다. 캔버스에 담긴 그림들마다 마치 어린아이의 그림일기처럼 작은 이야기들이 촘촘히 숨겨져 있다. 우리를 둘러싼 일상의 바탕 위에 성경 속 그리스도의 행적을 엮어 새로운 이야기를 창출해낸다.

그의 그림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동네에,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대로(大路) 한가운데, 혹은 야구장이나 결혼식장 뷔페에 등장하는 모습이다. 마리아의 수태를 알리는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 온 동방박사들은 낙타가 아니라 헬멧을 쓰

하면서도 차분하게 구성해가는 그만의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호연 화백의 작품들은 점묘법(點描法)으로 모자이크처럼 여러 색을 붙여내는 것이 특징이다. 사람 얼굴은 물론 바탕도 붓으로 한 점 한 점 찍어내며 포근한 느낌을 주고자 밝고 따뜻한 색감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성경 속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 기적의 행적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그만의 터치로 따뜻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림 전체로 퍼지는 따뜻한 색조의 파장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 내려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표현되어 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이스크림 나라(2020)

그림 속에 담긴 예수님의 따사로움

1982년 서울의 기독교 집안에서 출생한 이호연 화백은 어려서부터 예술과 신앙이 함께하는 분위기에서 자랐다. 미숙아로 태어나 출생 직후 호흡 곤란증후군을 앓았고 후유증으로 어눌한 말투를 갖게 됐지만, 그는 부모의 기도와 미술에 대한 집념으로 역경을 이겨냈다. 이호연 화백이 성경 구절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 4년간 미국 ‘더 아트 스튜던트 리그 뉴욕스쿨’에서 유학 중 ‘그림으로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다. 당시 깊은 회의감에 빠져있던 그는 며칠 밤낮 교회를 찾아 기도하다 문득 ‘주님 모습을 그리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 그 후 미술사 속 여러 추상 표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성경 묵상으로부터 얻은 영성을 바탕으로 그만의 독특한 회화 기법을 세웠다. 이후 서울과 뉴욕을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호연 화백은 2005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작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렸던 개인전 <사람은 무엇

이호연 화백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갈망하는 그리스도의 따사로움을 독특한 회화기법으로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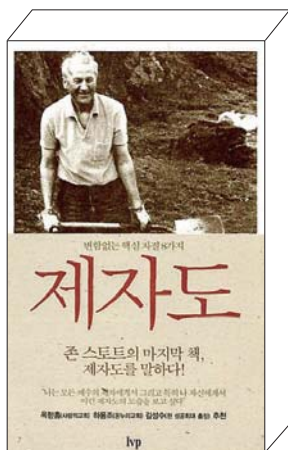


놀이동산(2017)

으로 사는가>에 이르기까지 10여 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또한, 성경의 이야기와 그림을 엮은 내용의 저서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2015)』, 『예수님, 지금 여기에(2018)』,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2021)』를 펴냈다.

이호연 화백은 언론 인터뷰에 응할 때마다 ‘그림의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림을 통해 어지러운 세상에 함께하시는 주님의 따뜻함을 표현하면서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보듬고 싶다는 이 화백의 소망처럼 그의 작품에는 일상을 살아가는 아주 작고 평범한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리스도의 따사로움과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 **만남**

그리스도인을 넘어 '제자'로... 존 스토트의 「제자도」



존 스토트 지음 /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168쪽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였던 영국의 존 스토트(1921~2011)가 88세 나이에 우리에게 고별메시지를 전한 책이 『제자도』입니다. 저자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며, 복음주의 진영의 신학적 지도자로 알려졌습니다. 이 책에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책의 첫 질문 ‘제자인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은 당연히 예수님과 관계를 내포하지만 저자는 ‘제자’가 더 강력한 단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식하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도의 변함없는 핵심자질 8가지(순종·뉘음·성숙·창조 세계를 돌봄·단순한 삶·균형·의존·죽음)를 한 주제로 설명합니다. 물론 소제목만으로는 그 의미를 자세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8가지 핵심자질의 의미를 바로 이해한다면 존 스토트가 말하는 제자도의 의미를 알게 되며, 제자의 삶을 살아

야겠다는 분명한 확신을 마음에 간직할 것입니다. 특히 저자는 위에서 열거한 핵심자질 중 2번째 항목인 ‘뉘음’에서 신약 성경 속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1) 성육하신 그리스도
- 2)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
- 3)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
- 4)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
- 5)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위에서 열거한 그리스도의 다섯 가지 모습을 닮아감으로써 제자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섬김, 사랑, 오래 참음, 선교를 기억하고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위기에 처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우리의 믿음이 멈춘 것 같은 이때에 그리스도인에서 예수님 제자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평생의 헌신과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은 이 책은 영락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불꽃을 선사하리라 생각합니다. **만남**



김충섭 목사
강동·송파교구
제자양육훈련부

교회소식

news letter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자! 2021 부활주일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배와 각종 모임이 축소된 가운데 말씀 묵상과 기도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낸 교회와 성도들은 4월 4일 부활주일을 맞아 예배와 찬양으로 예수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다. 1부에서 5부까지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로 드러진 부활주일 예배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요한복음 6:22~40절을 본문으로 ‘끝에

서 되돌아보다(4):영생’ 제목의 말씀을 통해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담을 새 몸을 주시는 축복”이라면서 “우리 모두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자”고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찬양예배 시간에는 시온찬양대 주최로 부활주일 음악예배가 본당에서 열렸다. 솔리스트의 독창과 찬양대원들의 중창이 어우러진 가운데 <힘찬 십자가 능력있네>, <예수 사셨도다! 알렐루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비롯한 부활 찬양곡들을 선사했고 영상으로 대원들의 얼굴이 비치는 가운데 영상 합창 <할렐루야>를 부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변두리에서 가운데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변두리에서 가운데로’를 주제로 지난 3월 29일(월)부터 4월 3일(토)까지 오전 6시(토요일은 6시 30분) 본당에서 열렸다.

기도회 기간에 마태복음 4:12~17, 마가복음 3:1~6, 15:21~32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가운데 사람’으로 행세하지 말고 주님의 시선이 닿는 ‘변두리’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은총을 구하자”라며 고난주간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김 목사는 “주님은 우리를 변두리에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며, 이는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이라고 언급



하면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과 낮아짐을 갈망하는 ‘변두리의 영성’을 역설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되어 가정에서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

취재 이재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천생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2021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행사



한경직 목사 21주기를 맞아 ‘2021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행사가 4월 16일(금) 오후 2시 본당에서 1부 기념예배와 2부 기념강연회로 열렸다. 최승도 목사(기념사업회 연구목사) 인도로 시작한 기념예배는 정승봉 은퇴장로의 기도 후 김운성 목사가 요한복음 3:29~30절을 본문으로 ‘친구의 기쁨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한경직 목사님의 삶은 평생을 주님을 기쁘게 하셨던 일생”이라고 전하며 “목사님이 남겨주신 그 자리에 이제는 우리가 서야 할

때”라고 권면했다. 이어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정영근 장로가 ‘한경직복음학교’에 대해 소개한 후 이철신 원로목사의 축도로 기념예배를 마쳤다.

기념강연회에선 ‘2020 한경직 논문상’ 수상자인 김성호 목사(협성대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천생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목사는 강연에서 “한 목사님의 경천애인 사상과 영적 리더십은 지금도 목회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한경직 목사의 신앙유산들을 상세히 짚어나갔다. 또한 “영락교회는 사랑과 겸손, 청빈으로 상징되는 목사님의 리더십을 계승,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제1남선교회, 육군 1사단에 부활절 기념 달걀 전달

제1남선교회(회장 안태운 장로)는 지난 3월 31일(수) 서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는 육군 1사단을 방문하여 부활절 기념 달걀 2만 5,000개를 전달했다. 1사단 측의 요청에 따라 1남·여선교회, 선교부, 북한선교부 관계자 8명으로 방문 인원을 제한한 가운데 진행된 전달식에서는 1사단 군중참모와 예하 여단 군중 목사가 함께 참석했다. 사단 군중참모는 감사인사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1사단의 전설로 불리는 백선엽 장군이 생전 출석하시던 영락교회에서 부활절 달걀을 보내와 그 의미가 더욱 크다”라고 전하며 감사의 표시로 사단 마크가 새겨진 기념 코인을 1남선교회 측에 전달했다.

이번 부활절 달걀 전달에는 1~4남·여선교회가 동참한 가



운데 790만 원의 소요 경비 중 1남선교회가 320만 원을 부담했으며, 북한선교부 송악기도처팀에서 군부대 세례식에 필요한 초코파이 10박스를 지원했다.

제공 제1남선교회

5월 목회력

1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2일(주일)	어린이주일, 유아세례식, 원포인트 교육주간
9일(주일)	아버지주일, 가족주일 특별예배, 찬양예배 성찬, 제직회, 원포인트 교육주간
15일(토)	남선교회 연합체육대회
16일(주일)	교육주일, 원포인트 교육주간
21일(금)	심방준비회
21일(금)~23일(주일)	청년선교비전
23일(주일)	성령강림주일, 사회봉사주일, 다음세대 기도회, 원포인트 교육주간
30일(주일)	전도대로365 - 예배로의 초대

※ 5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태복 은퇴장로 별세, 4월 13일 교회장



이태복 은퇴장로가 지난 4월 11일(주일)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1928년 황해도 개풍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1970년대 전도부 실행위원으로 수년간 봉사

하며 당시 우리 교회에서 전도왕으로 두 번이나 선정되어 장년 이상 성도들에게는 복음 전도에 열정을 쏟았던 인물로 기억된다. 1976년 12월 집사 안수를 받은 후 평신도부(중년1부) 부장, 관리부 차장 등을 맡았으며, 1991년 12월 제23회 시무장로로 장립되어 1994년까지 당회원으로 섬기며 경조부장, 영락기

도원 운영위원, 은퇴제직상조회 회계를 역임했다.

4월 13일(화) 오전 8시 30분 본당에서 교회장으로 엄수된 장례예식은 김형찬 목사(용인·화성교구) 인도로 시작되어 양인성 장로의 기도 후, 집례를 맡은 김운성 위임목사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사도행전 27:22~25)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실 장로님을 생각하며 천국소망을 갖고 살아가자”라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장례예식을 마친 후 장자인 영락교회공원묘원에서 김형찬 목사 집례로 하관예식이 진행되었다. 유족으로 장남 이창선 장로, 자부 장현숙 권사와 두 명의 손자를 두었다.

편집장 레터

1년 넘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어든 만큼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더 많이 대화는 하시는지요? 예전에 비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천국이 가정이라는데, 이 사랑의 공동체는 잘 굴러가고 있는지,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만남'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 자녀, 부부 간에 너무 익숙해서 지나치기 쉬운 일들을 알아보는 재미있는 문제들을 출제했으니 가족들과 함께 풀어보고 채점도 하면서 가족간에 서로 관심을 가지는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불려도 그리운 이름 '어머니'에 대한 여러 편의 사모곡들을 통해 과거의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현재의 부모로서, 또 미래의 부모로서 나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심을 갖고 읽어보실 다른 기사들도 소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상교육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수학 학력격차가 벌

어진다는 언론기사도 있어

서 평생 수학교육에 몸

담은 전문가로부터 자

녀 수학교육의 팁을 들어봤습니

다. 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백신접종에 대한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도 읽어보시기 바

랍니다. 작년까지 예쁜 일러스트로 섬겨주셨던 윤진경 집

사님을 이어 김윤재 집사님이 맡아주시는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니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대로 365'가 두 번째 여정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재되는 성서의 현장을 참고하여 더 깊이 있는 통독이 되

시기 바라며, 지금까지의 말씀 공부 '전도대로 365'를

통해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는

5월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장 김기선



2021년 5월호 통권 567호

발행 2021. 5.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양지청

편집위원 김기선 박선이 김갑수 김경옥

김창섭 김효진 나광호 안동현

안하운 우대권 유혜정 이준영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최윤미

교열 계영희 이광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www.youngnakmn.net



월간 '만남' 웹진



월간 '만남' 앱
안드로이드용



월간 '만남' 앱
아이폰용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다른 그림 찾기

〈함께해보아요〉 코너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김윤재 집사가 구성한 다양한 내용들로 매월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위 아래 그림의 다른 부분 6곳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호에^^



2021년 예루살렘 지역의 성서 지리를 살펴보면서 모든 영락 가족이 <말씀대로 365>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하늘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구약 성경,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에서 창세기 역사가 다시 기록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다윗성이 세워지며,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과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역사가 이어집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요약'된 하나의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성 지역 : 다윗 왕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벽(다윗성) 옛 흔적
역대상과 역대하를 살펴보면 뺄 수 없는 중요한 인물과 사건을 꼽는다면,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여 다윗 왕조가 시작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성 지역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기름부음 받았던 기혼샘으로부터 다윗의 수많은 이야기가 등장하는 주요 무대입니다. 사진은 3,000년 전 다윗 왕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벽의 흔적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루살렘 다윗성에 그 현장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전산 지역 :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

성전산 지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예배한 장소입니다. 사진은 솔로몬 당시의 성전 모습을 복원한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신앙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아주 중요하게 자리합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앗수르와 바벨론에 함락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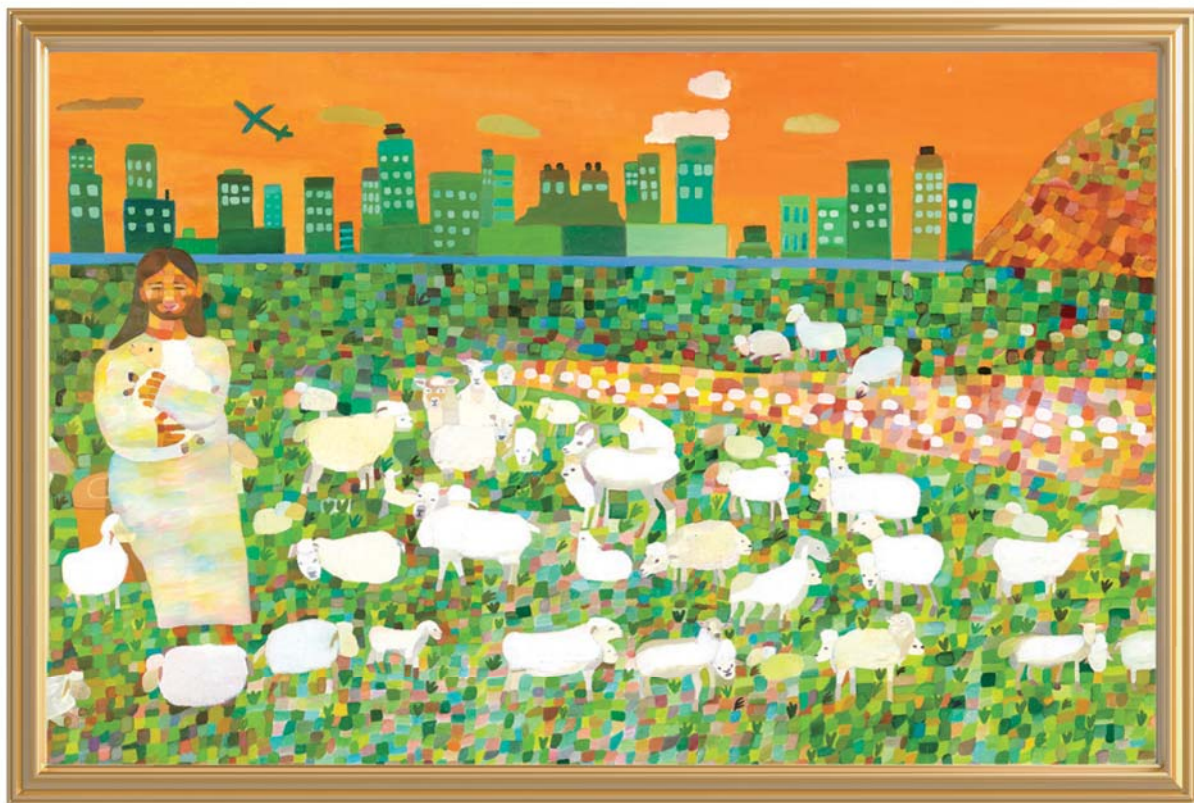
다윗성 지역 :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재건 현장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현장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현장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성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현장은 위의 사진 기록으로 알 수 있듯 2021년 지금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아무쪼록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산 지역과 실제 성전 모형을 살펴보면 영락 가족 모든 분이 <말씀대로 365>를 더욱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락화랑

잃어버린 양 (Once lost, now found)



이호연, Oil on Canvas, 227.3cm×162.1cm, 2019년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나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12~14)